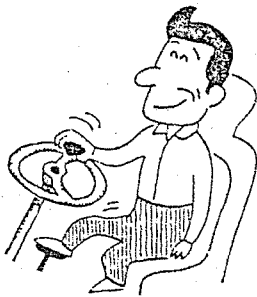


환자의 자동차 운전은 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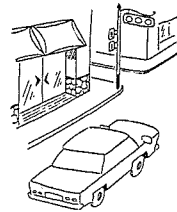
뇌졸중 환자이지만 운전이 가능한 사람도 있다. 가벼운 정도의 뇌졸중인 경우에는 운전에 별 무리가 없다. 그러나 중증 환자의 경우는 사정이 틀린다.

우선, 안전운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면, 수족·시력·청력·판단력·기억력·읽는 능력·정상적인 지각 등이 필수적이다. 당연히 운전에 있어서도 해도 좋은 사람과 무리한 사람의 경우가 생긴다.

핸들에 손잡이를 덧붙이고 자동변속기도 설치할 생각입니다.



• 실어증이 있는 경우는, 읽고 쓰는 능력을 잃어버려서 표지판의 지시를 이해하지 못하므로 운전은 무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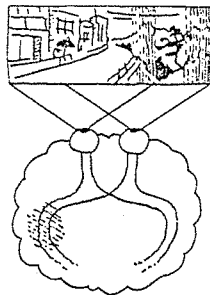


19▶

• 지각과 인식의 장애의 경우, 신호의 색과 표지판을 보기가 곤란하고 입체가 평면으로 보인다면 운전은 역시 무리이다.



• 한쪽의 상하지(上下肢)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훈련을 통하여 건강한 상하지만으로 운전이 가능할 수 있다.



운전을 해도 좋은지, 해서는 안되는지는 의사의 세밀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시각장애의 경우, 조절시아의 손상이 있으면 운전은 불가능하다.



• 경험있는 지도원과 의사, 임상심리사 등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고도의 전문화된 분야이다.